

어린이 구강건강 증진 노력 남원시보건소, 유치원 대상 찾아가는 보건서비스 실시

남원시보건소가 최근 유치원, 어린이집 등 35개소 1,900명을 대상으로 취학 전 아동의 구강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구강보건서비스를 마쳤다고 9일 밝혔다.

어린이 충치예방사업은 스스로 구강건강관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올바른 칫솔질 습관을 갖도록 하고, 충치 예방을 위해 불소도포 및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치아홈메우기, 불소용액양치사업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보건소는 기관의 사전 신청을 받아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등 35개소를 방문하여 아이들에게 구강검진, 올바른 잇솔질 교육 과 불소바니쉬 도포를 실시했다.

불소바니쉬 도포는 치아의 조직을 단단하게 하고 40%의 치아우식증(충치)예방효과가 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관계자들은 시설에 직접 방문하여 아동들에게 잇솔질 교육 및 체험을 병행한 구강보건교육과 불소바니쉬 도포, 검진 등 찾아가는 구강보건서비스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남원시보건소 관계자는 "아동들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충치예방을 위한 구강보건교육과 가장 효율적인 불소바니쉬 도포 등 구강보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N치즈축제 새역사 쓰다

관광객 45만여명 인산인해
역대 최고치 기록 '썩팻'
80여개 프로그램 성료
경제파급효과 수백억원 기대

긴 추석연휴 명절기간 동안 유일무이한 축제로 열렸던 '2017 임실N치즈축제'가 축제를 전후해 역대 최고치인 45만여명에 달하는 관광객 수를 기록하면서 '썩팻'을 터뜨렸다.

특히 이번 축제는 추석연휴를 전후해 임실치즈테마파크를 방문한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축제 이튿날부터 10여만명이 찾았고, 사흘간의 축제기간에만 35만여명 등 45만여명이 방문하는 등 '초대박' 신기록을 남겼다.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열린 '2017 임실N치즈축제'에는 명절 연휴를 맞아, 가족·친지 등과 함께 찾아온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며, 대성공을 이룬 축제라는 평가를 받았다.

9일 군에 따르면 올해 축제기간을 전후해 연휴 방문객이 급증하면서 약 45만여명의 관광객이 축제장을 찾은 것으로 집계되면서, 명절 연휴



긴 추석연휴 명절기간 동안 유일무이한 축제로 열렸던 '2017 임실N치즈축제'가 축제를 전후해 역대 최고치인 45만여명에 달하는 관광객 수를 기록했다.

특수를 기록히 누린 축제로서 대기록을 세웠다.

올해 축제는 긴 연휴기간으로 해외 여행객들이 급증, 관광객들이 줄어 들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말끔히 불식시키며, 과감한 시도와 추진력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이번 축제는 '웃어봐요! 치즈, 행복 쪽~'이라는 주제로 치즈라는 소재를 최대한 살려낸 10개 테마의 80여개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첫째날인 8일 개막식에는 송하진 도지사와 각 시군 단체장 등을 비롯해 전북대와 원광대에 재학 중인 15개국 유학생 100여명이 대거 참석했

다.

개막식 축하공연에는 인기 가수 홍진영과 VIXX, 왈라리 등이 축하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하며 축제분위기를 한껏 띄웠으며, 아모르파티에는 인기방송인 박명수가 직접 DJ로 출연해 첫날 축제의 밤을 뜨겁게 달궜다.

7일에는 올해도 어김없이 높은 인기의 혼남세프인 최현석 셰프가 출연해 치즈요리의 참맛을 알렸으며, 유우드림 행복드림 페어이드에서는 마칭밴드, 치즈요정들이 관광객들과 어울려 유럽전통춤을 선보이며, 관광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축제장을 찾은 아이들은 페어이드를 따라 다니며 신나게 동참했다.

셋째날(8일)에는 축제열기가 절정에 달하며, 전국치즈창작동요대회와 어린이치즈요리 경연대회를 비롯한 임실필통농악보존회의 춤추는 상쇠 등의 이색행사가 펼쳐졌다.

마지막 날인 9일에는 임실치즈의 아버지 지정환 신부가 축제장을 방문해 300여명의 전국 관광객들과 함께 치즈나라 치즈법석 모자이크 행사를 통해 임실치즈사 50년사를 기념했다.

특히 이번 축제에는 형형색색의 천만송이 국화가 치즈테마파크 일원에 펼쳐지면서, 유럽풍의 건물과 어우러져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했으며, 청정임실에서 자란 압소산우고기와 대쪽 할인 판매된 임실N치즈와 고품질의 농축특산물 제품 등도 인기를 끌면서 수백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심민 군수는 "관광객이 대거 방문해, 임실N치즈 브랜드의 위상강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축제효과가 크게 나타나 어느때보다 기쁘고, 감회가 남다르다"며 "명절 연휴에 축제를 찾아주시는 방문객들과 축제 준비에 반납없이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공공비축미 5259톤 매입 추진

남원시, 수확기 쌀값 안정
내년 1월중 확정 지급
산물벼, 내달 15일까지
건조벼는 연말까지 수매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추분이 지난 요즈음 전국에서 벼 수확이 가장 빠른 남원에서 벼 8,905ha를 재배해 나 오고 있는 가운데, 시가 지난달 27일 현재 2,104ha 벼를 수확해 23.6%의 벼베기 실적을 보였다고 9일 밝혔다.

남원시는 2017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으로 새누리, 윤광벼 2개 품종에 한해 매입을 하는데 산물벼 917톤(1,146.45톤백/800kg)과 건조벼 4,342톤(5,426.85톤백)으로 전체 5,259톤(6,573.3톤백)을 매입한다.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량은 남원시 조곡 생산 예상량 6만9,103톤의 7.6% 정도를 차지한 불량이다.

시에서는 지난달 27일 음면동에 지침을 시달해 산물벼는 남원시 관내 2개 미곡종합처리장(RPC)인 남원농협 RPC와 지리산RPC에서 11월 15일까지 매입하고, 건조벼는 관내 읍·면·동 정부양곡 보관창고에서 10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입한다.

또한, 시에서는 가을철 포대벼 수매 시 수매인력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지난해 수매를 모두 마치고 12월부터 공공비축미 보관창고를 대상으로 톤백벼 수매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왔으며, 금년부터는 농업인들의 노동력 절감과 품위검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량 대형포대인 톤백(800kg)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올해 공공비축미곡 우선지급금은 전년도와 달리 지급하지 않으며, 지급방법을 개선하여 수확기(10월~12월) 산지쌀값을 반영하여 내년 1월 중에 확정지급 할 계획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남원시 내년도 살림편성 본격 시동

신규시책 발굴 보고회
부서별 총 119건 논의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지역발전의 마중물이 될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최근 시청 회의실에서 '2018년 신규시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이환주 남원시장 주재로 부시장, 국장을 비롯한 각 실과 소장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서별로 발굴한 총 119건의 시책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한편, 남원시는 이번 신규시책 발굴 보고회에 앞서 이미 자체예산 1천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2018년도 신규사업 124건을 발굴한 바 있다.

이번 보고회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남원을 언급해 화제가 되기도 했던 가야사 연구 및 복원사업, 일자리 창출형 화장품 벤처 빌딩 구축, 교통산



남원시가 최근 시청 회의실에서 2018년 신규시책 발굴보고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국장, 각 실과소장 등이 심도있는 토론을 하고 있다.

성 복원화 계획, 신혼부부 핑크하우스 건립 제공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과 청년 문화기획자 아카데미, 치매노인 실종예방 사업, 행정사를 통한 효율적인 보조사업 관리 및 일자리 창출, '남대문을 열자' 관광투트 개최, 춘향사랑 kiss day 운영, 승월고 감성글귀 포토존 조성 등 적은 예산으로 추진 가능한 다양한 사업들이 제안되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남원시 발전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발굴에 임해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각자 맡은 자리에서 발굴된 시책에 대해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지역 매아리 남원시 수생태계 복원 앞장 토종 다슬기·미꾸리 방류

남원시가 최근 시 공무원과 환경단체 회원, 유치원생 등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섬진강(요천) 일원에 토종어족 보호 및 생태계 복원을 위해 토종어류 다슬기 61만패와 미꾸리 8만7천마리 치어를 방류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9일 밝혔다.

시에서는 생태계교란 외래 동·식물 퇴치사업의 일환으로 올 봄 산란철 외래어종(배스, 블루길) 수매사업 및 인공산란장을 이용한 번식차단 등으로 토종어류 서식환경 개선에 다양한 사업을 함께 추진하였으며, 이번 행사에서 방류된 건강한 토종어류는 수생태계 복원 및 수자원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무분별한 어류포획 등으로 멸종되는 우리의 토종어족자원을 보호하고자 매년 다슬기 및 치어 방류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올 봄에는 참봉어 12만마리를 방류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외래동식물 퇴치 및 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하여 자연과 살아 숨 쉬는 건강한 수생태계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백두대간 한가위 체험한마당 남원시, 소규모 특별전 종료

남원시가 추석 황금연휴 기간인 지난 달 30일부터 이달 9일까지(추석 당일 휴관) 전시관에서 백두대간에 서식하는 다양한 가을 풀벌레전시와 전통놀이, 공예체험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소규모 특별전 '백두대간 한가위 체험한마당'을 운영했다.

가을 풀벌레 생태전시에는 철쭉기, 썩새기, 실베짱이, 방아개비, 넓적배사마귀 등 20여종의 토종 풀벌레가 전시됐다. 전통놀이 한마당은 투호, 제기차기, 팽이치기, 대형숫놀이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가족단위 관람객들의 가족 화합·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공예체험 한마당은 한지공예, 가족공예, 자개공예, 천연제품만들기 등이 무료(1일 150명 내외)로 운영되어 행사기간 전시관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체험기회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남원=유영철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환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